

부화기 가동율에 따라 병아리 생산비 큰 차이

□ 취재/이유혁 기자

국 내 부화장의 부화기 가동은 상시 모두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부화기가 고장이나있는 곳을 제외하면 부화기의 가동은 정상적이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입란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병아리 연평균 가격은 겨우 생산비에 근접하는 수준에 있어 부화장들의 실제 가동율을 알아보고 가동율이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았다.

1. 부화장 가동율

부화장의 가동율을 육용계 부화장 12곳, 산란계부화장 5곳, 계열주체 6곳, 총 23개를 대상으로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중 최고, 최저, 평균,

현재 가동율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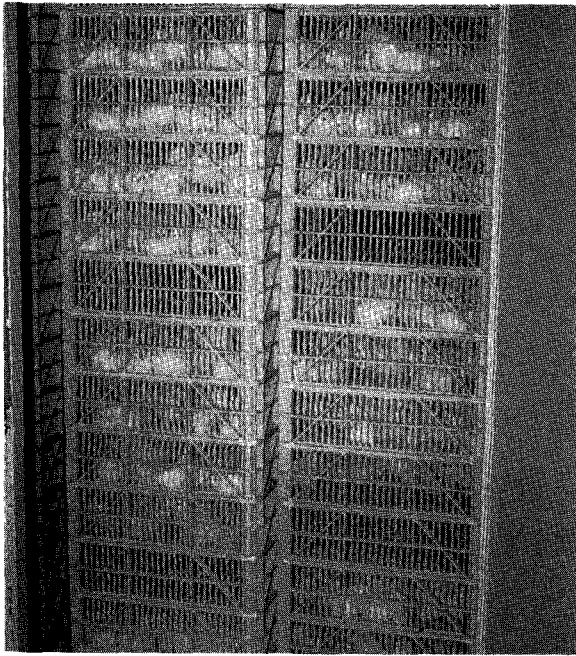
1) 육계

경기가 좋거나 현재와 같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부화장의 가동율이 100%인 곳도 있는 반면 80% 정도에 머무는 곳도 있다. 현재와 같이 어려

운 시기에는 가동은 하지만 입란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화기에 100% 입란하는 부화장도 있지만 심지어 일부 부화장에서 입란을 전혀 하지 않을 때도 있다. 경기가 최고로 저조할 때는 부화장 가동율이 52.77%를 보이



△ 종란을 발육기에 넣는 모습



△ 병아리가 깨어나는 발생기 모습

고 있지만 최고일 때는 평균은 95%나 된다. 위탁부화의 경우는 항상 90% 이상의 부화장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종란수가 많아 입란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산란계도 육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을 때에는 100%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25%의 수준을 보이는 곳도 나타났다. 경기가 좋지 못한 때의 평균을 보면 61%로 매우 저조하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놓고 따져보면 19% 정도 낮은 수준으로 육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7/15)의 가동율과 최고 가동율의 차이를 보면 13%로 육계와의 편차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산란계

3) 계열

T업체만 제외하고 최고 가동율은 100%이고 최하도 T업체를 제외하면 평균 70%를 넘어 육계의 최하 수준인 53%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T업체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부화장을 가동하는 이유는 부화기의 고장과 부화장의 축소를 들고 있으며 부화기에 넣지 못한 종란은 인근 다른 부화장에 위탁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반 부화장과 마찬가지로 자체종란과 위탁종란을 함께 부화시키는 곳이 있는데 경기에 따라 그 양을 조절하고 있다.

표1. 육계 일반 부화장의 가동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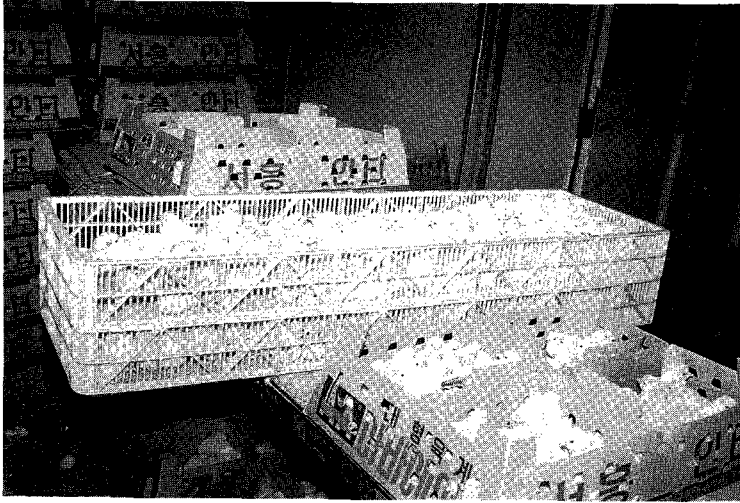
	A	B	C	D	E	F	G	H	I	J	K	L	평균
최고	100	100	60	100	100	100	100	100	80	100	100	100	95.00
최저	65	70	30	52.5	0	30	60		55.5	75	90	90	52.77
평균	75.5	85	50	75.5	70	45			70	75	90	90	72.60
현재	75	70	30	75	65	30	96.5	65	55	75	90	100	68.88

표2. 산란계 부화장 가동율(%)

	M	N	O	P	Q	평균
최고	100	100	90	100	100	98
최저	50	100	70	25	80	61
평균	80	100	80	70	90	80
현재	80	100	80	75	90	85

표3. 계열주체의 부화장 가동율

	R	S	T	U	V	W	평균
최고	100	100	41.5	100	100	100	90.25
최저	100	70	25	70	50	80	65.83
평균	100	80	35	85	70	90	76.67
현재	100	70	36.5	100	70	100	79.42



△ 발생용기에서 상자로 담겨진 모습



△ 병아리·종란 운반 차량

2. 지출내역

1) 종란(생산)비

병아리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란비로 총비용의 3분의 1이상을 점하고 있다. 종란은 부화장 자체에서 종계장을 가지고 종란을 생산하는 경우와 종계를 위탁주어 생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자기종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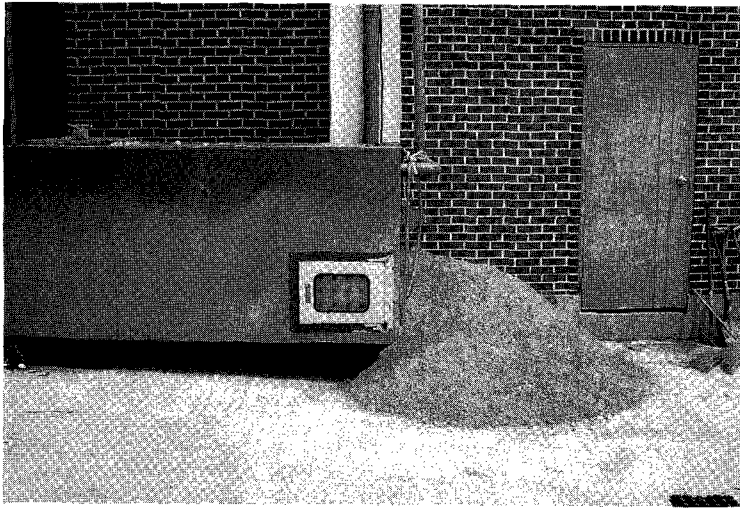
자체종계장을 가지고 있는 부화장의 경우 종란 생산비를 산출하면 된다. 생산비는 인건비, 종계가격, 사료비, 약품비, 연료비와 계사내부의 자재 감가상각비 등을 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개당 18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② 위탁종란

계열주체와 계약사육하는 종계장은 종계사료, 연료 및 약품비를 받고 입란대비 배부율에 따라 70%~85%는 개당 40원에서 55원까지 1%당 1원씩 가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 범위 밖에 해당할 경우 1%당 2원씩 가감하여 정산하고 있다. 또한 일반사육을 하는 종계장에서 부화장으로 넘길 경우 110원에서 180원까지 받고 있는데 계열주체에서와 같이

표4. W사의 종란수수료 지급액

입란대비 배부율(%)	종란 수수료(원)	입란대비 배부율(%)	종란 수수료(원)
70	40	78	48
71	41	79	49
72	42	80	50
73	43	81	51
74	44	82	52
75	45	83	53
76	46	84	54
77	47	85	55



△ 난각처리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사료비나 연료비 및 약품비를 주는 곳도 있지만 일반 중계 농장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2) 인건비, 상자값, 공과금, 운송비

종란(생산)비 다음으로 많이 소요되는 경비가 인건비, 상자

비, 공과금, 운송비로 이들 중 인건비가 수당 45원중 3분의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각각 10원 정도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상자가 적은 부화장마다 작게는 10원에서 많게는 30원가량으로 지역과 부화장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원가 차이에 영향

표5. 입란수에 따른 고정비 및 기타경비의 지출 변화 및 생산원가 비교(원/수)

입란 (개)	가동율 (%)	경비			병아리 수당 생산원가	비교*
		고정비 (원/수)	기타 경비 (원/수)	계		
1만	100	45	20	65	290	0
9천	90	49.5	22	71.5	296.5	6.5
8천	80	54	24	78	303	13
5천	70	58.5	26	84.5	309.5	19.5
6천	60	63	28	91	316	26
5천	50	67.5	30	97.5	322.5	32.5

* 종란 1만개 기준(가동율 100%), 종란가격 : 180원 1개, 배부율 75%

을 주지 못하는 편이다. 운송비는 병아리나 종란의 운송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근거리인 경우 수당 10원 미만인 곳도 있고 원거리는 10원정도 높게 나왔다.

공과금이 의외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 부화장의 경우 한달에 200여만원이라는 돈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3) 기타 경비

기타 경비로는 차량유지비, 은행이자, 식비, 전화요금, 난각처리비(월간양계 6월호 참조) 등이 있다.

이중에서 은행이자로 나가는 금액도 작은 편이 아니다. 은행이자는 부화장의 규모를 늘리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돈을 은행에서 빌려 사용하거나 사료대금과 같은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부화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에게 지급되는 식비도 의외로 액수는 적지만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결론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만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입란수가 10%가 감소할 때마다 병아리 생산원가는 6.5원이라는 금액이 올라 간다.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숫자지만 이것이 몇 십만수가 되면 지출 또한 많아지게 되어 부화장은 손해를 보게 된다.

고정비나 기타 경비 및 종란가격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앞의 표1,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농장마다 부화장 가동율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기에서 나오는 손익차는 다양하고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

아리가격이 나쁠때는 입란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다.

산란실용계 부화를 하는 P농장과 같이 최고 최저차이가 75%일 때 수당 100원이라는 원가가 상승된다. 이러한 현상이 중소 부화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부화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가 상승은 있지만 병아리 가격이 변화가 안된다면 부화장들이 손해를 입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화장이 가동은 되고 있

으나 입란이 적은 것이 문제다. 오히려 손실이 경감될 수도 있어 경영적인 측면에서 입란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부화기는 입란수와 관계없이 가동되면 전기소모량을 포함한 부대경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 가동율에 따라 병아리 생산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물론 불황일 경우 입란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기가 호전되는 시점에서 부화기의 가동율을 높이는 것이 생산비를 낮추는 길이라 생각된다. **양계**

축산기자재 A/S 불편 신고센터 운영

養畜家 A/S를 위한 Good마크



본 제품은 (사)한국기협 회원사의 생산 제품입니다. 회원사의 제품을 구입하시고 A/S에 불만이 생기셨다면 지금 곧 협회로 연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출원 : 제10284 호

- ◆ 많은 돈을 들여 구매하시거나 시설 투자한 축산시설 환경기계 등이 A/S 소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협회가 양축가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 대 상 : - 국내 축산 시설 환경 기계 제작사나 판매점에서 구입한제품
- 외국 제품으로 국내업체를 통해 구입한 제품
- ◆ 연락처 : TEL:(02)3473-2900~1, FAX:(02) 3473-2902
- ◆ 회원사의 제품은 협회가 보장 합니다.(G마크)
협회에서는 한국축산시설환경 기자재를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여 축산 기자재의 발전과 효율적인 축산자동화에 이바지하며 신속한 A/S 처리를 확인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다짐하는 회원사의 결의의 마크인 Good 마크를 제품에 부착 품질보증을 합니다.
본 협회에 문의 하세요 양축가 여러분의 효율적인 시설 투자와 A/S 처리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 단 법 인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9-7(현대전원오피스텔 201호)
TEL:(02) 3473-2900, FAX:(02) 3473-2902